

독서 입문 : **비** 문학, **아** 직도 **몽** 개니?

수능 국어의 새로운 기준
김민수

김민수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약력)

오르비 클래스 국어영역 강사

김민수 수능국어 CLASS 운영

파라투스 국어 대표 강사

“뭉개지 말자. 제발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과학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해 왔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둘째,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다. 이처럼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험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먼저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이 되지 못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험펠의 이론이 설명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지만 하면 모두 설명으로 인정해야 하는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모두 설명에서 배제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험펠과 달리 셸먼은 설명이 논증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과 개념에 주목했다.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는 셸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험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은 독을 마신 것이지만, 독을 마시게 된 원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원인도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이에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없다면, 설명을 인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설명이라는 불명료한 개념을 인과라는 또 하나의 불명료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17. 윗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의의
- ②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문제점
- ③ 험펠의 설명 이론에서의 설명과 논증의 관계
- ④ 셸먼의 설명 이론이 험펠 이론에 비해 지니는 장점
- ⑤ 셸먼의 설명 이론이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인 결과

18. 윗글에 따를 때, 험펠의 설명 이론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이면 그것은 반드시 설명이다.
- ② 일상적 직관에서 설명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모두 설명은 아니다.
- ③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설명항에 포함되는 명제들은 반드시 참이다.
- ④ 피설명항은 특정한 맥락에서 보편 법칙에 따라 발생한 개별 사례이다.
- ⑤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피설명항은 반드시 설명항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19. 윗글로 미루어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명 개념이 인과 개념보다 불명료하다는 문제
- ② 원인과 결과의 시공간적 연결은 불필요하다는 문제
- ③ 인과 개념이 설명의 형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
- ④ 결과를 야기한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
- ⑤ 피설명항에 원인을 제시하는 명제가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

20. <보기>의 [물음]에 대해 험펠의 이론에 따라 [설명]을 한다고 할 때, (가)~(다)에 들어갈 [명제]를 바르게 고른 것은? [3점]

—<보 기>—

[물음]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왜 30°일까?

[설명]

설명항 { 보편 법칙: _____ (가)
 선행 조건: _____ (나)

피설명항 : _____ (다)

[명제]

ㄱ. A는 광선을 잘 반사하는 평면거울이다.
 ㄴ.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입사각은 30°이다.
 ㄷ.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30°이다.
 ㄹ.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ㄱ, ㄴ | ㄷ | ㄹ |
| ② | ㄱ, ㄹ | ㄴ | ㄷ |
| ③ | ㄴ, ㄷ | ㄱ | ㄹ |
| ④ | ㄹ | ㄱ, ㄴ | ㄷ |
| ⑤ | ㄹ | ㄱ, ㄷ | ㄴ |

단락별 정리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과학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해 왔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둘째,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다. 이처럼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험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먼저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이 되지 못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험펠의 이론이 설명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긴 하면 모두 설명으로 인정해야 하는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모두 설명에서 배제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험펠과 달리 쉐먼은 설명이 논증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과 개념에 주목했다.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는 쉐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험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①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은 독을 마신 것이지만, 독을 마시게 된 원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원인도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이에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없다면, 설명을 인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설명이라는 불명료한 개념을 인과라는 또 하나의 불명료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전체 구조 잡기

물랐던 어휘 CHECK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17~20번]

[지문 분석 : 병렬적 구성]

-> 해당 지문은 전체적으로 **병렬적 구조**였습니다. 우선 1문단에서 [설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소재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화제인 [설명을 분명히 하고자 -> 과학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론을 제시]**를 파악했다면 전체적인 글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늘 말하지만 1문단에서 어떤 개념이 정의되거나, 제시된다면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화제가 제시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그러한 화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확인해줘야 합니다. 즉 글의 방향성을 잡는 거죠. 따라서 1문단을 읽고 무의식적으로 2문단으로 넘어가서 바로 읽기보다는 의식적으로 멈추고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화제가 뭐지?'**를 반드시 생각해주고 2문단 독해로 넘어가주도록 해요. :)

2문단에서는 1문단에서 제시한 화제, 즉 **여러 가지 설명 이론** 중에서 먼저 **[험펠의 설명 이론 -> 설명을 '논증의 형식으로 봄 -> 험펠의 설명 이론의 의의]**에 대해서 제시하는 문단이었습니다. 해당 문단의 독해가 가장 빠르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제시되기 때문이죠. 다만 제시된 문장을 정확하게 끊고, 붙여서 읽어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머리로 정리가 안 될 때는 간단하게 옆에 수식이나 구조를 그려서 정리해주면 훨씬 독해가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2문단을 읽어가면서 **[논증 / 설명항 / 피설명항]**등과 같이 제시된 개념간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줬다면 훨씬 이해가 수월하고, 정보량의 압박이 줄었을 것 같네요. 또한 2문단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설명되고 있는 개념을 제시된 사례에 적용해서 생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즉 2문단 중간 중간에 제시되는 **'소크라테스'**와 관련한 예시를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례들을 **[질문, 답 = 설명]**과 같은 개념에 적용해보면서 읽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평가원이 만약 여러분에게 추상적인 개념이나 복잡한 원리에 대해서 제시했고, 만약 그러한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구체화된 사례나 예시'를 제시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례나 예시가 제시된다면 가볍게 공개지 말고, 그러한 사례를 통해 앞서 제시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문단에서는 2문단에서 제시된 험펠의 설명 이론과 관련해 **[험펠의 설명 이론 한계 ->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부합X]**에 대해서 제시하는 문단이었습니다. 사실 3문단의 독해를 결정하는 것은 2문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문단을 잘 읽고 넘어왔다면 당연한 내용들로 편하게 읽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2문단부터 3문단의 내용이 모두 붕 뜰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3문단을 읽어가면서 독해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단순히 3문단뿐만 아니라, 2문단에서 놓친 부분이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없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3문단을 읽어가면서 **[문제점이나 한계(P)가 제시되었네 -> 단순히 문제점이나 한계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일으킨 원인에 주목해야지 -> 그리고 그렇다면 다음 문단부터는 이러한 문제점, 한계에 대한 해결책이나 보완책(S)이 제시될 수 있겠다]**와 같은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었다면 4문단 초반부가 예상한 대로 흘러갈 것이고 훨씬 편안하게 독해할 수 있었겠죠.

한편 4문단에서는 험펠과는 다른 이론을 펼친 **[셀먼의 설명 이론]**이 제시되는 문단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험펠의 이론과 달리 일상적 직관과 부합하는 -> 셀먼의 설명 이론 -> '인과' 개념에 주목 -> 설명을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밝히는 것'이라고 봄 -> 셀먼의 설명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 서술하는 흐름이었죠. 4문단부터 중요했던 것은 [험펠의 설명 이론 <-> 셀먼의 설명 이론]을 '비교'하면서 읽는 거였죠. 늘 말하지만 이러한 병렬적 구성의 지문에서는 그러한 병렬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선지에서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그러한 정보들을 비교하고 정리해주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교의 기준은 당연히 '공통 서술 범주'가 되겠죠. 즉 해당 지문에서도 **[논증 <-> 인과 / 각 이론의 장점과 단점]**을 기준으로 제시되는 정보들을 비교하면서 읽어줬다면 선지 소거가 훨씬 빨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정? 인정. :)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정의된 개념]을 이해하고, 그러한 개념을 [사례]에 적용해보는 것이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독해 과정을 돌아보면서 제시된 사례를 너무 가볍게 읽고 넘어간 것은 아닌지 확인해주도록 해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지문을 읽어갈 때 어떠한 사례가 제시된다면 그러한 사례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필자가 그러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1문단

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과학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해 왔다.

-> 한 문장이었지만 겹문장이 많아 텅기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해당 지문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쪼개 읽고 **[설명을 분명히 하고자 -> 과학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론을 제시]**와 같은 구체화된 화제를 잡아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① **[[('왜?'라는) / 질문에 대한 /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 무엇인지]를 / 분명히 하고자 // 과학철학에서는 /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 제시해 왔다.**

-> 정확하게 쪼개 읽었다면 아래와 같은 정보가 들어왔어야 합니다.

- 1) 왜 = 질문
 - 2) [왜 =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것 = 설명
 - 3) 그러한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 과학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함
- > 그렇다면 우리는 [설명]이라는 것이 [불분명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불분명한 개념이니 분명히 하고자 한 걸 테니까요.
또한 해당 문장을 통해 **[과학 철학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설명 이론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설명하겠다]**와 같은 화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자연스럽게 해당 지문이 **'병렬적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파악했을 것 같네요. 납득? 납득. :)

1문단 정리

[설명을 분명히 하고자 -> 과학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

2문단

①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②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 ③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④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⑤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⑥ 둘째,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⑦ 셋째, 피설명 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⑧ 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다. ⑨ **이처럼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문단은 1문단에서 제시한 화제인 **[과학 철학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설명 이론]** 중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된 설명 이론인 **[험펠의 설명 이론]**에 대해서 제시하고 구체화해서 설명하는 문단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①에서 그러한 세부 화제를 제시하고 ②~⑧에서 걸쳐서 구체화해서 설명한 뒤 ⑨에서 그러한 험펠의 설명 이론의 의의를 제시하는 흐름이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①에서 험펠이 **[설명] =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 논증의 형식]**으로 보았음을 제시했죠. 그리고 ②에서는 **[논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③에 그러한 논증의**

개념을 **험펠의 이론에 적용시켜서 제시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즉 험펠의 설명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논증]**이 무엇인지에 대해 선행 개념을 제시하고 험펠의 이론에 적용시키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④~⑧에서는 험펠의 이론에서 그러한 논증이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논증]**을 **[3가지 요건]**으로 구체화해서 제시하는 흐름이었습니다. ⑦~⑧ 역시 잘 붙여 읽어야 하는 문장들인데 3번째 조건이 **[건전한 논증이어야 함]**임을 제시하고, ⑧에서 그러한 **[건전한 논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⑨에서는 앞서 제시된 내용을 묶어서 그러한 험펠의 설명 이론의 의의를 제시하면서 2문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단을 읽어가면서는 ① 문장을 중심으로 ②~⑧에 해당하는 문장들의 **'충위'**를 느껴가면서 읽어줬어야 하고, 그랬다면 정보량도 훨씬 좋고 제시된 내용들이 범주화돼서 정리하기 편했을 것 같네요. :)

④ [처음으로 /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 제시한] 험펠에 따르면 // 설명은 / (몇 가지 요건을 /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 우선은 해당 문장을 읽으면서 1문단에 제시된 **[여러 가지 설명 이론 -> 험펠의 설명 이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문단을 연결해서 읽어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장을 잘 쪼개 읽었다면 자연스럽게 **[논증]**과 **[몇 가지 요건]**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야 하고, 그랬다면 뒤에 제시되는 문장들의 충위를 느끼면서 글의 내용을 **'정리'**하기 수월했을 것 같네요.

1)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사람 -> 험펠

2) 그러한 험펠에 따르면 -> [설명 =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 논증]

-> 따라서 다음 문장부터는 당연히 험펠의 설명 이론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논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몇 가지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오호. 납득.

② 기본적으로 / 논증은 / (전제로부터 / 결론이 / 논리적으로 / 도출되는) 형식을 / 띤다.

③ 따라서 /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 전제에 / 해당하며 //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 결론에 /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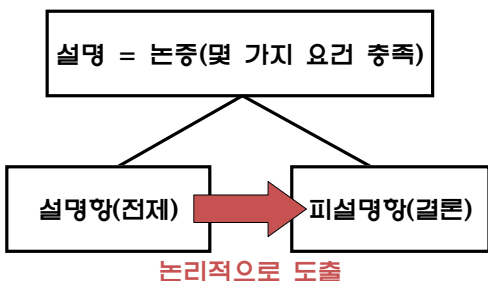
-> 우선 포인트는 ②를 읽고 나서 명시적 연결 고리, 즉 지시어나 접속어가 없더라도 [논증]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①에 붙여줄 수 있었어야 합니다. 즉 [‘갑자기 왜 논증에 대한 설명이지?’]가 아니라, [‘아 험펠의 설명 이론에 따르면 설명은 논증의 형식을 띤다고 했지 -> 그래서 ‘논증’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설명해주는 구나.’]와 같은 생각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따라서’라는 접속어를 통해 ②와 ③을 붙여 읽었다면 이해가 수월했을 것 같네요.

1) 논증 = [전제로부터 -> 결론이 도출]

2) 설명항 = 설명을 하는 부분 = 전제

피설명항 =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 = 결론

-> 이 부분에서 많이 당황하는데 풀지 말고 제시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개념간의 관계에 주목했으면 됩니다. 또한 1)에 제시된 ‘논증’의 개념을 2)에 잘 적용해서 읽었다면 아래와 같이 두 개념간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머리로 하기 힘들었다면 아래와 같이 구조도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했고, 그 작은 차이가 다음 내용을 독해하는 것에서 큰 이해의 차이를 가져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 많은 학생들이 **[‘설명이 피설명항이라는 건가?, 설명항이라는 건가?’]**와 같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정확하게 읽었다면 험펠이 주장한 설명은 **[논증의 형식]**이고, 즉 **[설명항에서 피설명항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위와 같은 형식]** 자체를 설명이라고 본 거죠.

④ 험펠에 따르면 // 설명은 / 세 가지 조건을 / 모두 / 충족해야 한다.

-> ②~③을 위와 같이 잘 읽었다면 ④에 해당하는 문장이 제시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야 합니다. 즉 **[논증]**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이제 **[몇 가지 요건 -> 3가지 요건]**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음 문장부터는 그러한 3가지 요건에 대해서 각각 구체화해서 제시할 가능성이 크겠죠.

⑤ 첫째, / 설명항에는 /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 보편 법칙 /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 하나 이상 /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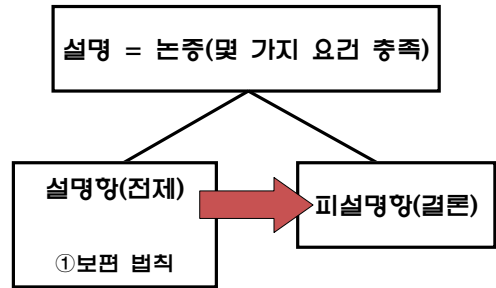
-> 3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제시하는 문장이었죠. 예시를 잘 활용해줬다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앞에서 **[설명 = 피설명항 -> 피설명항]**과 같은 개념간의 관계를 잡지 못했다면 여기서부터 제시되는 3조건이 모두 붕 뜬 가능성이 크구요.

1) ‘모든 사람은 죽는다’ = 보편 법칙 or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

-> 예시를 통해 ‘보편 법칙’에 대해 이해했으면 됩니다. 말 그대로 보편적인 법칙을 말하는 거네요. 납득.

2) 1)과 같은 [보편 법칙 or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설명항]에는 하나 이상 있어야 함

->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앞에 그린 구조도를 활용해서 정리했으면 수월했을 것 같네요. 앞서서 **[설명 = 설명항 -> 피설명항]**의 형식이라고 했는데 설명항, 즉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편 법칙이나 그러한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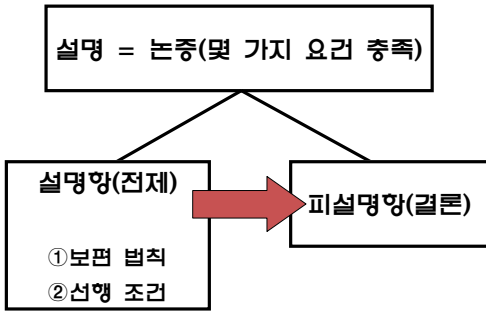
⑥ 둘째, / [(보편 법칙이 / 구체적으로 / 적용되는) 맥락 /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 선행 조건이 / 설명항에 / 하나 이상 / 있어야 한다.

-> 두 번째 조건이 제시되네요. 앞서서 설명항에 **[보편 법칙]**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조건에 따르면 **[선행 조건]** 역시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보편 법칙]**과 **[선행 조건]**이라는 두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를 주어진 **[예시]**에 적용해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1) 선행 조건 =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

-> 예시를 통해 이해하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보편 법칙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선행 조건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도출되는 **[피설명항 =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가 되겠죠. 이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정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제시되고 있는 [설명]은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예시에서 제기되었던 [질문]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험펠의 설명 이론을 적

용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정리하면 아래와 같겠네요.



*Point 주어진 사례에 적용해서 이해하기.

질문 :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는가?

설명 : [설명항 : 모든 사람은 죽는다 ->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 [피설명항 :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㉗ 셋째, / 피설명항은 / 설명항으로부터 / '건전한 논증'을 통해 / 도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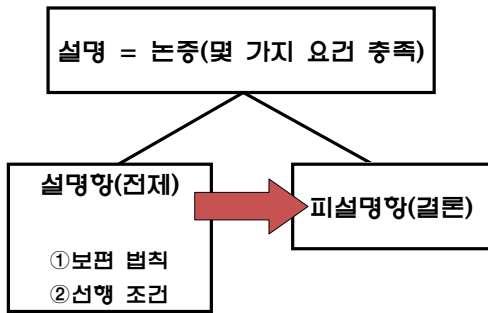
㉘ 이때 / 건전한 논증은 /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 결론도 /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 모두 / 만족하는) 논증이다.

-> ㉗~㉘은 긴밀하게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문장들이죠. ㉗에서 세 번째 조건을 제시하고 ㉘에서 그에 대해 부연하는 흐름이었으니까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설명항 -> 피설명항]의 도출이 [건전한 논증]을 통해서 도출되어야 함.

2) 건전한 논증 = [조건1 =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 + [조건2 =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

-> 정리하면 건전한 논증이란 설명항에 있는 [보편 법칙]과 [선행 조건]이 모두 참이라는 것과 그럴 때 결론도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시를 통해 이해하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가 참이고, 그럴 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가 반드시 참임을 만족하는 논증이라는 거네요. 당연한 말이 되겠죠. 납득.



㉙ 이처럼 / 험펠의 설명 이론은 / ([피설명항이 / 보편 법칙의 / 개별 사례로서 / 마땅히 일어날 만한 / 일이었음]을 / 보여 주기 위한 / 설명의 요건을 / 제시했다)는 점에서 / 의의가 있다.

-> 늘 말하지만 [이처럼 / 이와 같이 / 결국]등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은 앞에 제시된 내용들을 묶어서 정리하는 문장일 가능성이 큼니다. 즉 범주화를 위한 지표가 되는 문장이라는 거죠. 따라서 해당 문장을

읽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앞에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떠올리고 정리해주고 넘어가면 정보량을 높이고, 글의 흐름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험펠의 설명 이론의 의의

->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 =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 =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음

->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개념과 그러한 개념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랬다면 당연한 정보가 되었을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험펠의 설명 이론에 따르면 결국 [피설명항 =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결국 [보편법칙 =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개별 사례이자,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 되죠. 즉 험펠의 설명 이론은 이러한 점을 보여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거네요. 납득.

2문단 정리

[여러 가지 설명 이론 -> 험펠의 설명 이론 + 의의]

3문단

① 하지만 험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② 먼저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③ 또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이 되지 못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④ 이는 험펠의 이론이 설명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지만 하면 모두 설명으로 인정해야 하는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모두 설명에서 배제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 2문단에서 [험펠의 설명 이론]에 대해 구체화하고, 의의를 제시했다면 3문단에서는 그러한 [험펠의 설명 이론의 문제점 -> (우리의 일상적 직관 =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함]을 제시하는 문단이겠죠.

세부적으로 ①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두괄식으로 제시한 뒤, ②~③에서 그러한 문제 상황을 구체화해서 제시했죠. 그리고 ④에서 그러한 문제가 비롯된 원인에 대해서 제시하며 마무리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따라서 3문단을 읽어가면서는 ②~③을 ①에 맞추어 읽어주는 게 중요했고, ④를 읽을 땐 2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납득'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원 비문학 지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시되는 경우 높은 확률로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보완책이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부분들 역시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었겠죠. 늘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비문학의 경우 시간이 부족하다고 급하게 읽는 것보단 문장을 잘 자르고, 붙여서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들었어야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시간 단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① 하지만 / 험펠의 설명 이론은 / (설명에 대한 /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 추상적 문제에 대해 /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 상식적 판단)과 / 충돌하기도 '또' 하는 / 문제가 있다.

-> 2문단에서 구체화한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하는 문장이었죠. [즉]을 기준으로 제시되는 정보만 정확하게 끊고, 붙여서 읽어줬다면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 -> 추상적 문제

-> 납득하면 됩니다. 추상적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죠.

2)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

-> [즉]을 기준으로 앞, 뒤의 내용은 같으므로 붙여서 납득하고 넘어갔으면 됩니다.

3) 험펠이 설명 이론은 2)와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음

-> 결국 정리하면 험펠의 설명 이론의 문제점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충돌한다는 거네요. 아직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시된 정보 정도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갔으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뒤에서 구체화하거나, 예시를 통해 설명해줄 테니까요. 쫄지 마세요.

② 먼저 /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 험펠에 따르면 / 설명이 아니라고 /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③ 또 /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 설명이 되지 못하지만, // 험펠에 따르면 / 설명으로 /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②,③을 읽을 때 핵심은 ①을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결국 [험펠의 설명 이론 ->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충돌함]을 두 가지의 경우로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 험펠의 설명 이론 ->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충돌

- 직관에 따르면 설명O <-> 험펠에 따르면 설명X
- 직관에 따르면 설명X <-> 험펠에 따르면 설명O

④ 이는 / [험펠의 이론이 / '설명'을 / (몇 가지 요건을 / 충족하는) '논증'으로 / 국한했기 때문에 //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기만 하면 / 모두 / 설명으로 인정해야 하는 동시에, // 그렇지 않으면 / 모두 / 설명에서 배제해야 하는] 데서 / 비롯된 것이다.

1) 험펠의 이론 -> [설명 =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으로 국한

2)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면 직관과 충돌해도 설명O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논증이면 직관에 부합해도 설명X

-> ④는 험펠의 설명 이론에서 ①~③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시하는 문장이었죠. 다만 해당 문장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2문단에서 제시된 내용을 떠올려 줄 수 있었어야 합니다. 즉 [험펠의 설명 이론 -> 설명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으로 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우리의 직관과 어긋나도 설명으로 인정이 되고,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의 직관에 맞더라도 설명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아하. 납득.

3문단 정리

[험펠의 설명 이론의 문제점 -> 설명에 대한 일상적 직관과 충돌하기도 함]

4문단

① 험펠과 달리 셸먼은 설명이 논증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과 개념에 주목했다. ②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는 셸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험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③ 하지만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④ 왜냐하면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은 독을 마신 것이지만,

독을 마시게 된 원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원인도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⑥ 이에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⑦ 그것이 없다면, 설명을 인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설명이라는 불명료한 개념을 인과라는 또 하나의 불명료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⑧ 이에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 4문단은 험펠의 설명 이론과는 다른 [셸먼의 설명 이론]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러한 이론의 [장점]과 [문제점]을 제시하는 문단이었죠. 따라서 해당 문단을 읽어가면서는 당연히 제시된 두 이론을 [비교]하면서 읽어주는 게 매우 중요했죠. :)

세부적으로 ①에서 험펠과는 다른 셸먼의 이론을 제시했고, ②에서 그러한 셸먼의 이론이 험펠의 이론에 비해 지니는 장점에 대해서 제시했죠. 그리고 ③에서는 그러한 셸먼의 이론이 지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한 후, ④~⑦에 걸쳐서 그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설명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⑧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철학자들의 고민을 제시하면서 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독해의 포인트는 셸먼의 이론이 지니는 문제점이 왜 [철학적 문제]에 해당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주는 게 중요했고, 또한 제시된 사례를 통해 결국 4문단에서 던져진 질문 역시 2문단과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는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 :)

① 험펠과 달리 / 셸먼은 / (설명이 논증은 아니라고) / 판단하여 // 인과 개념에 / 주목했다.

② [피설명항을 / 결과로 보고 /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 설명이라는] 셸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 (험펠의 이론보다 /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 더 부합한다)는 / 장점이 있다.

-> 험펠과는 다른 셸먼의 이론이 제시되네요. 따라서 여러분은 둘의 이론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1) 험펠과 달리 셸먼은 설명이 논증은 아니라고 판단

2) 셸먼은 인과 개념에 주목

[피설명항 = 결과] -> 이러한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 설명
-> ②는 매우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셸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의 정의가 제시되는 문장이었으니까요. 다만 그러한 정의가 우리에게 친숙한 문장 형태인 [A는 B이다]의 형태가 아니라 [B인 A]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앞으로는 해당 문장 구조가 나왔을 때 정의라는 것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요. :)

내용상으로는 험펠은 설명을 논증의 형식으로 본 반면, 셸먼은 설명은 논증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대신에 셸먼은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았고, 그러한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고 본 거네요. 아하 납득.

3) 셸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험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

-> 그러한 셸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3문단에서 제시된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납득.

③ 하지만 /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 해결해야 한다.

④ 왜냐하면 /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 무수히 많고 / 연쇄적으로 / 서로 / 얽혀 있기] 때문이다.

-> ①~②에서 셸먼의 설명 이론을 정의하고, 장점을 제시한 후에 ③에서는 그러한 셸먼의 설명 이론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죠. ④는 그에 대한 부연이네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죠.

1)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얽혀 있음

2) 그래서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음 =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 ③~④를 잘 붙여 읽었다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인과적 설명 이론은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이론이고,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밝히는 것을 설명이라고 보는 이론이죠. 그런데 그러한 결과를 일으킨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납득.

다만 여기서 그러한 문제가 왜 '철학적 문제'인지 정확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 인식했다면 [근데 그게 왜 철학적 문제이지?]라는 의문을 갖고 남은 문장들을 읽어야 하고, 그랬다면 ⑥에서 그러한 문제가 왜 철학적 문제인지가 납득이 되었을 겁니다. :)

⑤ 예를 들어 /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은 / 독을 마신 것이지만, // (독을 마시게 된 원인)은 /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 (사형 선고를 받게 된 / 원인)도 / 여러 가지들 / 떠올릴 수 있다.

-> [예를 들어]를 통해서 ③~④와 붙여서 읽으면 됩니다. 결국은 [결과]와 [원인]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예시였죠.

다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더 많은 게 보입니다. 아까 2문단을 읽으면서 제시되고 있는 사례의 질문이 [왜 소크라테스가 죽었는 가]였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4문단을 읽으면서도 사례의 질문이 같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같은 질문에 대해 두 이론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답 =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⑥ [이에 /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 골라내는] 문제는 / 결국 / (원인과 결과가 / 시공간적으로 /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 철학적 분석을 / 필요로 한다.

⑦ 그것이 없다면, // (설명을 / 인과로 / 이해하려는) 시도는 / [(설명이라는) '불명료한 개념'을 / (인과라는) '또 하나의 불명료한 개념'으로 / 대체하는 것]에 /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생각보다 [이에]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에 = 이러하여서 골]이라는 의미이니 반드시 기억해두도록 해요.

정리하면 결국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와 원인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어떤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앞선 문장에서 [원인과 결과 사이가 불분명한 문제]를 [철학적 문제]라고 했던 거죠. 또한 이러한 철학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설명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인과적 설명 이론이 제시되었는데, 만약 그러한 철학적 분석이 없다면 인과적 설명 이론은 결국은 [설명 = 불명료한 개념] -> [인과 = 불명료한 개념]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납득.)

1문단에서 [설명 = 불명료한 개념]이라는 것을 한 번만 인식하고 넘어왔다면 해당 문장에 대한 이해가 수월했겠죠. :)

⑧ 이에 / 현대 철학자들은 /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 (새로운 설명 이론을 /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 계속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제시된 두 이론 모두 문제점이 있는 이론이기에 현대 철학자들은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네요.

4문단 정리

[험펠과는 다른 셸만의 인과적 설명 이론 -> 장점과 문제점]

[문제 해설]

17번 : ⑤

-> 셸만의 설명이론은 마지막 문단(=4문단)에서 제시됐죠. 험펠의 설명이론과 대조적으로 셸만의 설명이론은 설명을 논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과 개념을 통해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러한 셸만의 이론은 험펠의 이론과 달리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잘 들어맞는 장점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러한 셸만의 설명이론 역시 한계를 갖는다고 했고, 그게 바로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인 문제였죠.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구요.

즉 선지의 '셸만의 설명이론이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인 결과'는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셸만의 설명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 철학자들이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이는(=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한다고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①

->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의미는 2문단 마지막에 [이처럼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②

->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문제점은 3문단에 [하지만 험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③

-> 험펠의 설명이론에서의 설명과 논증의 관계는 2문단에 제시되어 있죠.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둘째~셋째~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다]에서 확인 가능해요. 즉 험펠은 [설명=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④

-> 해당 선지는 험펠과 셸만의 각각의 설명 이론을 [구분]하고 [비교]하는 선지죠. 셸만의 설명 이론은 험펠 이론에 비해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험펠의 이론은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셸만의 설명 이론은 인과 개념을 통한 인과적 설명 이론을 제시했고, 이는 [4문단 - 험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항상 [~보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두 병렬항을 비교하는 선지가 구성될 확률이 크므로 주목하도록 해요.

18번 : ①

->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이라고 해서 설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전형적으로 [인과]를 바탕으로 오답을 구성한 선지죠. 즉 [설명이라면 -> 건전한 논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건전한 논증 -> 설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설명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논증이어야 하니까요. :)

②

-> 일상적 직관에서 설명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모두 설명은 아니라는 점이 바로 험펠의 설명이론이 갖는 한계였죠. 즉 [일상적 직관 설명O->험펠에 따르면 설명X], [험펠에 따르면 설명O -> 일상적 직관 설명X]가 험펠의 설명이론의 한계였고,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는 이론이 셸만의 인과적 설명 이론이었죠. 즉 어떤 설명 이론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일상적 직관에서의 설명으로 인정되는 것이 '설명'으로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험펠의 설명 이론'에 관한 문제이므로, 적절한 선지네요.

- ③
-> 적절하네요. 어떤 것이 설명이라는 말은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논증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3번째 요건에 따라 설명항에 있는 모든 명제는 참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①과 유사한 의도의 선지죠.)
- ④
->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 가능하죠. 다만 단순 발체로 풀지 말고 반드시 지문 분석에 가서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오도록 해요. 제발.
- ⑤
-> 적절하죠. 설명이라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인데, 2문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설명항)에서 결론(=피설명항)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고 했으니까요.

19번 : ④[인과][예시]

-> ㉠은 '선행의 인과적 설명 이론의 한계'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선행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인과 개념'을 통한 이론으로 일상적 직관과 더 잘 부합하는 장점이 있지만, '인과 개념'으로 인해 '원인과 결과 사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음 문장에 일반화되어 서술되어 있고, 그 다음 문장에서 [예시]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설명해준다. 즉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얽혀있음-> 그래서 뭐가 결과의 원인인지 골라내는 문제는 시공간적으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함-> 그렇지 않으면, 인과적 설명은 불명료한 개념이 되어버림]이다. 따라서 ④[결과를 야기한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적절하다.

- ①, ②
-> 설명이라는 개념이 인과라는 개념보다 불명료하다는 문제가 아니죠. 인과적 설명이론에서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낼 때 철학적인 분석(=원인과 결과의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이 없다면, 설명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불명료한 개념이 되어버린다고 했을 뿐이죠. 따라서 인과의 시공간적인 연결(=철학적 분석)은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겠죠.
- ③
-> 인과 개념은 설명의 형식을 제시했죠. 그것이 바로 인과적 설명이론이구요. 이는 4문단 첫 문장에서 확인 가능했어요. 다만 이 이론이 갖는 문제점이 ㉠이었던 거죠.
- ⑤
-> 인과적 설명이론에서는 [피설명항 = 결과]로 보고,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을 밝히는 것 = 설명]이라고 봤는데, [결과를 밝히는 원인을 밝히는 것 -> why? -> 결과에 대한 원인이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얽혀있어서]라는 거죠.

20번 : ④[예시][정의]

-> <보기>문제에서는 항상 말하지만, 해석입니다. 즉 <보기>가 지문에 어떤 부분에 대응하고, 무엇을 묻고 싶은지는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해당 문제는 '헨델의 설명 이론'에 대한 문제죠. 즉 지문에서 제시한 [헨델의 설명 이론]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죠. 우선 \neg, \perp, \supset 은 A라는 구체적인 개별 대상이 있으므로, '보편 법칙'이 될 수 없겠지요. 한편 [B.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는 지문에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같은 보편 법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또한 그러한 보편 법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A라는 평면거울이 되겠지요. 따라서 [$\neg = A$ 는 광선을 잘 반사하는 평면거울이다 = 구체적인 대상], [$\perp =$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입사각은 30도이다]는 선행조건이 되겠지요. 즉 \neg 과 \perp 은 \supset 이라는 보편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개별 사례인 선행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가)의 보편 법칙을 (나)의 선행 조건에 적용시켜서 (다)라는 결론 = 피설명항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죠. 즉 (다)의 피설명항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어휘 Check]

체계적

->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ex)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충족

-> 넉넉하여 모자람이 없음
ex) 속구의 충족이 없으니 일에 흥미가 없다

의의

-> 어떤 사실이나 행위 따위가 갖는 중요성이나 가치
ex) 이번 탐사는 세계 최초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직관

-> 철학 감각, 경험, 인상, 판단, 추리 따위의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
ex) 그는 뛰어난 직관과 분석력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추상적

-> 1.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또는 그런 것
-> 2. 구체성이 없이 사실이나 현상에서 떨어져 막연하고 일반적인. 또는 그런 것
ex) 그의 말은 언제나 그렇게 추상적이고 애매하다.

국한

->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
ex) 자력을 20세 미만으로 국한하다

배제하다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다
ex) 새로 개정된 법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부합하다

->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
ex) 사실과 부합하다 / 국민 투표는 민주 정치의 근본이념과 부합하는 제도이다

불과하다

-> 1. 그 수량에 지나지 아니한 상태이다
ex) 분교의 학생은 다섯 명에 불과하다
-> 2. 그 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
ex) 영원한 사랑이란 환상에 불과하다

확정하다

-> 일을 확실하게 정하다
ex) 그 기업은 새로운 진출 분야를 자동차 산업으로 확정했다

야기하다

->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키다
ex) 혼란을 야기하다

